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

인터넷 검색창에 **요셉의원** 을 쳐보세요



# 요셉의원



격 | 월 | 간

2016년 12월 제 90호

<http://www.josephclinic.org> | [www.facebook.com/josephclinic1987](http://www.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이문주 신부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josephclinic@daum.net

## 요셉의원 제28회 아산상 대상 수상 한 알의 밀알이 거둔 30년 결실



요셉의원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수여하는 제28회 아산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5월 13일 대통령 표창인 ‘세종문화상’을 수상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맞는 경사다.

정몽준 이사장은 11월 25일 아산생명과학원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9년 동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여만 명의 저소득층을 개인의 후원금만으로 무료 진료를 해온 이문주 원장신부님과 신완식 의무원장님을 비롯한 요셉의원 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이 재단을 만드신 저의 아버지 탄생 101주년을 맞는 오늘 뜻깊은 시상식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시상식 후 단상에서 자리를 함께 한 직원과 봉사자들.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문주 원장신부, 다섯 번째가 신완식 의무원장.

이문주 원장신부는 수상 소감 발표를 통해 “요셉의원이 30년 가까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흔들림 없이 운영돼 온 것은 연 2000여명의 봉사자와 8000여명의 등록 후원자 그리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일해 온 병원 공동체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춘 주교, “기회되면 봉사에 동참하겠다”

요셉의원은 1987년 8월 서울 신림1동 동사무소 2층에서 문을 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도시 재개발에 따라 1997년 5월 영등포역 부근

90호  
주요  
소식



아산상 대상 수상

2



필리핀 요셉의원

3



쪽방촌 향기

8



봉사자코너

9



요셉의원 후원 안내

12



쪽방촌 현재 위치로 이전해 노숙인과 쪽방촌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진료와 음식 나눔, 이발, 목욕 등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아산상 수상 뒤 병원 안팎의 많은 분들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수상 며칠 후 혼자서 조용히 요셉의원을 찾은 유경춘 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겸임)는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여러 봉사자와 후원자들께서 도와 주신 덕택에 큰 상을 받게 돼 축하 드린다”며, “나도 언제 시간을 내서 직접 봉사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대 원장인 선우 경식 원장과 함께 개원 초부터 고락을 함께 해온 최동식 방사선사(80)는 “선우 원장이 살아계셨다면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며, “그 분이 뿌린 한 알의 밀알이 오늘날 큰 결



실을 맺은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 봉사하면서 후원금 내는 의사들

실제로 선우 원장이 선정한 2008년도의 등록 후원자수는 2400명 선이었으나 2016년 현재 8000명을 넘어서 요셉의원의 활동은 상당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후원회 담당 자원봉사자인 윤희문 선생(80)은 “회갑잔치 비용을 아껴서 후원금을 내거나 본인은 암에 걸렸는데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며 직접 후원금을 가져오시는 분들을 보면 예산을 더욱 절약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요셉의원은 인건비 비중이 30%가 채 안된다. 여러 사회복지기관들의 인건비 비중이 50~7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짠 편’이다. 그 이유는 오래된 직원이나 신입직원이나 모두 요셉의원 설립 취지에 공감해 같이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이다. 이문주 원장신부는 아예 급여가 없고, 신완식 의무원장은 직원과 똑같이 12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서 다시 후원금으로 낸다. 봉사를 나오는 의사도 모두 무료로 진료를 한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후원금까지 내는 분들도 있다.

#### ‘겸손한 봉사’를 지향하며

수상 소식이 보도된 후 여러 언론사에서는 원장신부 인터뷰나 방송 촬영 요청을 해왔다. 개원 초부터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봉사’를 지



## 언론에 보도된 아산상 수상 소식

11월 25일 아산상 시상식 후 16개 언론사, ‘60만명 무료 진료’, ‘쪽방촌의 기적’ 등 요셉의원 수상 소식 소개.

중앙일보

### 노숙인 진료 요셉의원, 아산상 대상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을 진료해온 서울 영등포구의 요셉의원이 제 28회 아산상 대상을 받았다. 상금 3억원. 박종철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이 의료봉사상을, 한국SOS어린이마을이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사진은 요셉의원의 이문주 원장신부(오른쪽)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사진 아산사회복지재단]

朝鮮日報

### 60만명 무료진료... 요셉의원, 아산상 大賞

이문주 원장신부 “상금 3억원 환자 자립·재활 돕는 데 쓸 것”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어려운 이웃과 소외 계층에게 무료 진료를 해온 요셉의원이 제28회 아산상 대상을 받았다고 아산사회복지재단이 25일 밝혔다. 아산상은 1989년 아산재단 설립자인 아산(峨山) 정주영 초대 이사장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했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단체에 주어진다.

요셉의원은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선우경식 초대원장이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처음 세웠고 지금은 영등포로 건물을 옮겨 무료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재단 측은 “요셉의원이 그동안 봉사자 700명과 후원자 8000명의 희생과 헌신으로 60만명에 이르는 어려운 이웃을 무료 진료해 왔다”고 말했다. 이문주 요셉



아산사회복지재단  
요셉의원 앞에서 신완식(앞줄 왼쪽에서 둘째) 의무원장, 이문주(“ ” 셋째) 원장신부, 신혜경(“ ” 넷째) 비파 원목수녀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의원 원장신부는 “요셉의원은 많은 사람의 손길이 모인 덕분에 소외된 계층 모두를 위로하는 의료복지의 상징이 됐다”며 “아산상 대상 상금(3억원)은 환자들의 자립과 재발을 돕는 프로그램 전용 시설 확충에 쓰겠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향해온 터라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신완식 의무원장은 “예전 선우 원장님이나 저나 마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리는 편”이라며, “다만 자선의 필요성을 알리

고 그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곳에서든 선의를 펼 수 있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원장님 부님이 몇몇 인터뷰나 촬영에 응하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KBS의 ‘다큐멘터리 3일’ 팀에서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만 3일간 요셉 의원의 봉사자와 직원, 환자들이 엮어 가는 일상을 찍어 우리 사회의 한 응달에서 빛어지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었다(25일 밤10시40분 방영).



수상식장에서의 이문주 원장신부와 신완식 의무원장(사진 오른쪽 위).

### 자활의지 복돋고 시설 개선에 힘쓸 터

수상 후 상금의 용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다. 현재 요셉의원이 위치한 곳은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건물을 마련해 서서히 이전 준비를 해야 한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요셉의원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쌀과 운영비가 떨어졌을 때 신기하게도 필요한 돈이나 물품이 들어와 고비를 넘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 때문에 요셉의원 공동체 사

람들은 ‘이 일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매진하고 있다.

내년이면 요셉의원은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이제 한 세대를 넘기는 것이다. 30주년에 앞서 받은 아산상 대상은 요셉의원에 큰 격려이면서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

이문주 원장신부는 “설립자인 선우 경식 원장이 진료와 함께 가난한 이들의 자활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던 만큼, 앞으로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갖추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환자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 병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경제



### 소외층에 29년간 무료 진료... 서울 요셉의원에 아산상 대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은 폭박은 주인과 노숙인 등 사회 소외층에 29년간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 요셉의원을 제28회 아산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요셉의원은 자원봉사자 70명과 후원자 8,000명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약 60만명의 노숙인, 폭박은 주인, 독거노인, 알코올중독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진료했다. 1987년 선우 경식 초대 원장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설립한 요셉의원은 재개발 공사로 영도동로 건물을 옮긴 후에도 무료 진료를 이어왔다. 2008년 선우경식 원장이 세상을 떠난 뒤엔 요셉의원 지도신부였던 이문주 신부



2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28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왼쪽)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요셉의원 이문주 원장신부에게 시상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별도의 정부 지원금 없이 후원자 8,000명이 모은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문주 요셉의원 원장은 “한 사람(선우 경식 원장)의 뜻으로 시작된 요셉의원은 많은 사람의 손길이 모인 덕분에 소외계층 모두를 위로하는 의료복지의 장이 됐다”며 “상금 3억원의 50%는 환자들과 재료를 돕는 프로그램 전용 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상 의료봉사단은 50년간 국내외 뇌전증 환자 치료에 전념한 박종철신경정신과의원의 박종철 원장이, 사회봉사단은 1963년부터 부모가 없거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학아제출 아동을 돌본 ‘한국300여명아들’이 각각 수상했다.

한국일보

### “한 사람 뜻으로 시작해 30년... ‘쪽방촌의 기적’이 됐습니다”

‘제28회 아산상’ 대상을 수상한 서울 영도동로 ‘요셉의원’은 “한 사람 뜻으로 시작해 30년... ‘쪽방촌의 기적’이 됐습니다”고 밝혔다. 이문주 원장은 “한 사람(선우 경식 원장)의 뜻으로 시작된 요셉의원은 많은 사람의 손길이 모인 덕분에 소외계층 모두를 위로하는 의료복지의 장이 됐다”며 “상금 3억원의 50%는 환자들과 재료를 돕는 프로그램 전용 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상 의료봉사단은 50년간 국내외 뇌전증 환자 치료에 전념한 박종철신경정신과의원의 박종철 원장이, 사회봉사단은 1963년부터 부모가 없거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학아제출 아동을 돌본 ‘한국300여명아들’이 각각 수상했다.



2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28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왼쪽)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요셉의원 이문주 원장신부에게 시상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문화일보

## 아산상 수상 소감



## ‘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이 진정한 수상자’



먼저 요셉의원이 ‘아산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산사회복지재단 정몽준 이사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산상은 현대그룹을 창립하신 고 정주영 회장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세우고, 그 뜻에 걸맞는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분야의 대표적인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요셉의원은 1987년 8월 29일 서울의 주요 빈민촌 가운데 하나였던 신림1동에서 개원한 이래, 29년 동안 묵묵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진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혈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치료는 물론 식사를 대접하고, 목욕과 이발을 시키고, 필요한 사람에겐 옷이나 신발을 나눠주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요셉의원을 찾는 노숙인이나 쪽방촌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겪으면서 술에 찌들고 자활의지마저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런 분들의 정신적 치유를 돕기 위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 모임을 비롯하여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치유인문학 강의, 음악치료 교실, 영화포럼 등의 강좌를 열고 있고, 작은 도서관과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산상 수상은 그러한 노력에 대한 따스한 격려임과 동시에 새로운 분발을 촉구하는 배려라 여겨, 내딛는 발걸음에 한층 무게가 더해집니다.

요셉의원은 고 선우경식 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합심해 병원을 세운 후, 1997년 지금의 영등포역 부근 쪽방촌으로 옮겨왔습니다. 설립 초기 ‘무료 병원은 3개월 버티기 힘들다’는 우려 속에 운영비는 물론, 끼니를 거르는 환자들을 위한 쌀이 떨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진료를 한다’는 병원의 사명에 공감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과, 내 일처럼 병원 일을 도와주신 수많은 봉사자 분들이 나서서 요셉의원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노숙인이나 행려자들의 투정을 받아주고 이들의 안위에 늘 관심을 기울이는 병원 공동체 여러분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요셉의원이 이렇듯 30년 가까이 곳곳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따스한 가슴을 지닌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문 배달을 하거나 용돈을 절약해 모은 돈을 후원금으로 내놓는 학생들부터 익명으로 거금을 후원해 주시는 분, 낮에 소속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저녁 진료를 위해 요셉의원으로 달려오시는 의료봉사진 등 2000여 명의 봉사자와 8000여 명의 후원자 모두가 아산상의 진정한 수상자들입니다.

저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단순한 신체적 진료를 넘어 정신적 치유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아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실천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활을 꿈꾸는 가난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싹을 마련해 주신 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고난을 딛고 우뚝 일어섬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요셉의원 이문주(프란치스코) 원장신부





##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필리핀서 2600여명 무료진료

신완식 의무원장, 의료진 30명과 함께 일주일간 의료봉사



나보따스 산호세 성당에서 가톨릭의료협회 의료봉사진과 필리핀요셉의원 운영진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11월12일(토)부터 19일(토)까지 7박8일간 신완식 의료봉사 위원장(요셉의원 의무원장) 및 최환석 해외의료봉사단장(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을 비롯한 단원 30명이 필리핀 말라본 시와 나보따스 시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북서쪽 지역에 위치한 이 지역은 여러 도시빈민촌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



\*\*\*\*\*

들이 오염된 강 옆의 판자 집에서 정기적인 일자리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말라본 시의 필리핀 요셉의원과 말라본 교도소, 나보따스 시의 빈민지역에서 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 환자 모두 2651명을 진료했다.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는 호흡기계 질환과 피부과 질환자가 많았으며, 의

료팀이 가져간 장비로 X-선 촬영과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및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외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처치도 시행해 평소 병원을 찾을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2010년부터 나보따스에서 필리핀 의료봉사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 필리핀 요셉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취약지역에서 의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필리핀 교도소 세 곳에 매달 의료지원

필리핀요셉의원은 칼로칸 교구 카리따스의 도움을 받아 인근 지역 교도소에 매달 의료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의 3개 교도소(칼로칸, 말라본, 나보따스)에는 모두 3000여명의 수감자들이 수용돼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감자들이 수용돼 있다 보니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전염성 질환에도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멀쩡한 사람도 교도소에 들어가면 심각한 병



의료지원을 한 나보따스 교도소 앞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왼쪽 세 번째가 장경근 신부

에 걸려 나온다'는 말도 듣고 있다.

필리핀 요셉의원은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칼로칸 교구 카리따스에 건의해 지난 11월부터 매달 의료지원을 하기 로 합의했다.

필리핀에서 사목하고 있는 장경근 신부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오 25장 36절)는 주님의 말씀처럼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진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 필리핀 요셉의원 8월~9월 신규 회원

강문호 강미원 강병곤 강병후 강순희 강승렬 강전숙 강정매 강지은 강필원 강향순 강홍숙 고강웅 고소선 고수석 고수열 고수진 고승희 고창성  
고하영 고 호 고희상 공은영 공준영 곽라은 곽민성 곽복남 곽상길 곽소연 곽정섭 곽크리스티나 구관우 구성민 구성연 구정의 구진희 국미숙  
권난주 권덕화 권동일 권동일 권순철 권영옥 권영옥 권오정 권윤정 권태중 권혁준 금기승 길종배 김경석 김경선 김경숙 김경숙 김경옥 김경은  
김경인 김경희 김광정 김국자 김국희 김기은 김기주 김남형 김대규 김대식 김도형 김동원 김라옥 김려수 김만수 김명아 김문승 김문아 김미경  
김미숙 김민철 김범중 김병채 김복남 김상연 김상열 김상진 김선미 김선에 김선희 김성경 김성은 김성진 김성집 김송태 김수경 김수동 김수연  
김수정 김숙희 김승애 김여숙 김영례 김영미 김영수 김영원 김영윤 김영자 김영준 김영현 김영희 김옥희 김용기 김용범 김용식 김우중 김우진  
김원석 김원자 김유미 김윤애 김윤이 김윤희 김익균 김인경 김인균 김자형 김잔디 김재경 김재엽 김재형 김정선 김정식 김정옥 김정현 김정화  
김종금 김종섭 김종음 김종전 김준현 김주영 김주은 김주현 김준섭 김지연 김진성 김진영 김진옥 김창성 김태근 김태열 김태형 김태환 김태희  
김학선 김학준 김한옥 김현숙 김현승 김현주 김형석 김형순 김혜린 김혜숙 김혜원 김 화 김효진 나영선 나함미 남대문시장성당 남영란  
남윤우 외 2인 남효주 노경미 노경상 노귀숙 노수현 노순옥 노영자 노유성 노정구 노현옥 노홍석 도수옥 도정희 류지훈 류형근 목5동 사랑의 회  
문경숙 문경혜 문국자 문서진 문서현 문예지 문종훈 문태식 문희재 민들레 민병일 민석준외 1인 민승기 민인순 박 경 박계희 박광원 박규건  
박규민 박금순 박노옥 박동덕 박라영 박명숙 박미숙 박미순 박미향 박민정 박민희 박병익 박복단 박상녀 박상언 박상훈 박서연 박석구 박성순  
박성희 박세란 박소현 박수일 박수현 박순부 박순애 박순안 박영규 박영란 박영혜 박예원 박용택 박유미 박은철 박익원 박재홍 박정숙  
박정현 박종건 박진서 박진용 박진주 박찬남 박판순 박현애 박형일 박형준 박혜선 박혜성 반재민 반포4동성당 소년소녀분과 발레리아 발비나  
방원규 배문옥 배성옥 배조미 배태경 백낙현 백미자 백인열 백혜정 변의현 변인선 변지영 변판석 변혜원 서길수 서남석 서남희 서 면 서유일  
서하나 선윤정 손외숙 손춘영 손효정 송경화 송근식 송수정 송수진 송숙희 송영순 송옥란 송은녀 송철순 송호인 송화연 스텔라 신경희 신동인  
신명숙 신소연 신수정 신순아 신승환 신영숙 신한주 신헌택 심영숙 심영순 안명자 안미경 안병정 안신애 안연옥 안영경 안영미 안인근 안인혜  
안혜준 양미경 양봉민 양봉민 양승복 양윤모 양정아 양정자 양지원 양한열 엄상윤 엄순용 여정희 엄동현 오숙혜 오요상 옥경숙 옥성아 우경화  
우미경 우세리 우애숙 우재남 우희두 원동민 원정윤 유나영 유덕현 유소영 유순영 유연숙 유연홍 유윤숙 유인숙 유재형 유정규 유지경 유형선  
유형철 유호정 유화경 윤경순 윤경현 윤대호 윤문선 윤미구 윤상실 윤석원 윤성옥 윤소정 윤순란 윤영주 윤용재 윤인정 윤태금 윤향주 윤현희  
윤형택 윤희선 윤희숙 은아 상아 정아 이강연 이경수 이계국 이광성 이규주 이규호 이근범 이금주 이기범 이기용 이기정 이기화 이나연 이남희  
이도율 이동익 이동현 이동희 이만재 이명숙 이모니카 이모라 이문섭 이문희 이미숙 이복선 이봉근 이비비안나 이삼선 이상현 이석원 이선령  
이수영 이수용 이수정 이수환 이숙한 이순덕 이순아 이순자 이순아 김상우 이승철 이연복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옥남 이우형 이원준 이윤경  
이윤숙 이윤애 이윤지 이윤희 이윤희 이은경 이은실 이인숙 이일영 이일주 이자영 이재규 이재웅 이정민 이정선 이정숙 이정훈 이점마 이종태  
이주임 이지민 이진아 이진영 이진원 이창욱 이창호 이치릴로 이태섭 이한아 이행로 이향숙 이현희 이현주 이현진 이형욱 이형준 이혜순 이호진  
이흥복 이흥상 이희진 임경희 임부순 임소남 임애숙 임준희 임창애 임채정 임홍근 자모회 장규성 장도민 장무희 장범수 장석만 장영선 장은기  
장현아 전기남 전명화 전순자 전은진 전정란 전주현 전해숙 정경원 신승혜 정기찬 정기호 정기화 정동욱 정동환 정로사리아 외 1인 정방언  
정순민 정순자 정승우 정애란 정연태 정영서 정영석 정영숙 정영신 정영옥 정은주 정인우 정재식 정재은 정중순 정중연 정진향 정해익 정혜승  
정호순 정희정 조경순 조경애 조규신 조남희 조득제 조명희 조민아 조병주 조삼숙 조석일 조석진 조선숙 조선휘 조성래 조성옥 조성진 조양숙  
조영춘 조은형 조정현 조진원 조현숙 조형찬 조혜경 주경자 주정애 주지영 진만규 진원경 진 주 진홍수 차수정 창5동성당사회사목회 채익선  
천상배 첫영성체팀 최루도비코 최문실 최문재 최미양 최병설 최복자 최선희 최성은 최수연 최숙경 최승범 최영숙 최영룡 최우창 최은희 최원모  
최은경 최은나 최의자 최인혜 최일호 최정옥 최정진 최종용 최주연 최주원 최준범 최철호 최철훈 최태웅 최현브라이언 최현옥 최혜선 태의경  
프란체스카 피지연 하은희 하재원 하정미 한경수 한경희 한계미 한명자 한병선 한상현 한상현 한선희 한선희 한성연 한승열 한시라 한재수  
한재필 한정란 한철우 한충일 함정순 허경렬 허성인 허아란 허예림 허예진 허은영 허중구 현지수 호수경 홍덕희 홍병길 홍선희 홍성철 홍승민  
홍승연 홍영숙 홍일출 홍준기 황경희 황남연 황미숙 황상옥 황선영 황성규 황하연 황혜선

## + 2016년 10월~11월 필리핀 요셉의원 - 환자 진료 1,446명, 무료급식 지원 8,827명



쪽방촌 향기

# 통증의학이 연결해 준 인연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의료진들께서 요셉의원에서 함께 인술을 베푸는 날이”

놀라운 효과에 저도 놀랍니다. 며칠 되지 않은 통증은 단 한 번의 주사로, 오래된 통증은 정확한 부위에 3~5회 주사를 맞으면 깨끗이 사라지고 맙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첫눈도 오고 12월도 왔으니 완전한 겨울이네요. 직원과 환우 분들을 통틀어 모든 요셉의원 가족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바로 통증의학 분야인데요. 요

셉의원 환우 분들의 진료를 진행하다 보면 몸 이곳저곳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은 환우 분이 몸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먼저 두통, 복통처럼 검사

가 필요한 통증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위험하지 않은 통증이란 확인이 되면 더 이상 자세히 볼 생각 없이 진통제만 드리고 지켜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제는 통증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 신경의 눌림을 주사로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의 통증 양상을 자세히 묻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특정 근육에 놓는 주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직접 원인이 되는 부위를 눌러봅니다. 만약 원인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눌러 통증이 심해지면 간단한 국소마취 약물을 희석해 근육 내 주사로 넣어줍니다. 정확하게 진단되고 정확하게 들어가면 통증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거짓말 같은 효과에 저도 놀랄 정도니까요. 며칠 되지 않은 통증은 단 한 번의 주사로, 오래된 통증은 정확한 부위에 3~5회 주사를 맞으면 완치가 되고 맙니다.

처음 이 통증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현재 통증의학과 진료 봉사를 하고 계신 유영열 선생님 덕분입니다. 같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학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 요셉의원에서 봉사 진료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고 알고 보니 응급의학과 학회의 신경조절주사요법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통



최석재

김포 뉴고려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증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은 요셉의원에서 격주 금요일 낮 시간에 통증의학과 외래를 개설해 많은 요셉 가족들의 통증

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통증을 공부하면서 의사들이 환자의 몸 안쪽 장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자세히 알고 있고 연구하고 있으면서도 몸 바깥에서 우리에게 통증을 주는 원인이 되는 근육과 신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무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했다기보다 무관심 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의학 분야가 세분화 되면서 환자의 불편함에 집중하기보다 질환의 병태생리와 약리학적 치료에만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료를 보면 볼수록 몸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짐과 동시에 몸의 신비에 대해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증을 공부하는 의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밴드가 있습니다. 유영열 선생님께서 그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께 함께 통증의학을 이용해 봉사진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제안에 화답해 몇몇 분이 제게 요셉의원에 대해 자세히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좀 더 용기 내어 주신다면 요셉의원에 통증의학과 외래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통증의학을 하시는 많은 의료진들께서 요셉의원에서 인술을 베푸는 날을. 그래서 어려운 생활환경과 몸을 많이 쓰는 일 등으로 생긴 몸 이곳저곳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드리는 날을. 그리고 그렇게 나은 몸으로 다시 삶의 희망을 쌓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 서울대병원 파카 등 겨울나기 용품 전달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12일 본원에 겨울나기 용품을 후원했다. 우흥군 대외협력 실장과 이영술 경일빌딩 대표, 이재범 발전 후원팀장 등 일행 6명은 이날 본원 이문주 원장신부를 방문해 겨울용 파카 상하의 10 박스와 두유 200박스, 교양도서 200권 등 모두 900만원어치의 겨울나기 용품을 전달했다. 이문주 원장신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세 번째로 보내주시는 온정의 손길”이라며, “노숙이나 쪽방촌 주민이 가장 견디기 힘든 추운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도록 잘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후원 물품 역시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플리마켓인 'SNUH 착한 가게'의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 한국 애브비 360포기 김장 봉사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인 한국 애브비는 11월 30일 20여명의 임직원이 본원을 찾아 김장봉사를 해주었다. 애브비 김장봉사팀은 이날 10여명의 병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9시부터 김장을 시작해 4시간 여에 걸쳐 36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매주 목요일에 병원을 찾는 노숙인과 쪽방촌 사람들 그리고 병원 봉사자들을 위한 주요 부식을 쓰이게 된다. 한국 애브비는 노력 봉사 외에 김장재료비로 500만원을 후원했다. 한국애브비는 글로벌 제약사인 애보트의 자회사로 C형간염과 신경과학, 면역학, 종양학 등의 분야에서 첨단약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업이다.



### 공내과에서 대장내시경 세트 기증

협력병원인 서울 목3동 소재 공내과의원에서 내시경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존 대장내시경 장비와 세척기를 본원에 기증했다. 본원은 위내시경 장비는 갖추고 있어 진료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장내시경이 필요하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었다. 이번 장비 확충에 따라 앞으로 간단한 대장내시경 검사는 본원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 수원 소화유치원생 후원금 전달

9일 경기도 수원시 소화유치원 원생 34명이 견학 겸해서 본원을 방문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원생들은 양승국 신부님 미사 집전 후 3층 경당에서 본원 직원과 봉사자 및 환자들



에게 멋진 성탄노래도 선물했다. 이 어린이들은 지난 1년간 폐지와 재활용품을 수집해 후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본원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성탄선물 세트를 나누어 주었다.

### 박경화 바리스타 커피메이커 기증

일산 호수로에서 커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화 바리스타가 지난 15일 커피 메이커와 원두 및 필터를 기증했다. 박 바리스타는 평소 커피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인터넷에서 요셉의원에 대한 기사를 읽고 본원을 기부처로 정했다고 한다.



박 바리스타는 하루 200잔 분량의 원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장비 점검도 해줄 계획이다. 커피메이커가 설치됨에 따라 본원을 찾는 노숙인들과 봉사자들이 겨울철에 따스하고 향내 짙은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 경영연구회 회장단 영양제와 후원금 전달

교수와 기업가, 언론인들의 경영 연구 모임인 경영연구회(회장 김관영) 회장단 일행은 21일 본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0만원과 종근당 비타민C 20박스, 대원제약의 콜대원 40박스를 전달했다.

김관영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노숙인과 쪽방촌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따스하게 보내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 ♥ 봉사자 코너

### 웃음치료 교실 여는 조유건씨 첫 개인전

#### ‘소통은 또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그림은 무엇보다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의 거실에 걸어놓고 볼 수 있고, 남에게 선물도 할 수 있어야

그림으로서 제 역할을 한다고 봐요”

50대 초반의 좀 늦은 나이에 첫 개인전을 연 화가 조유건 씨(50). 11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is)’에서 유화 15점을 선보인 그는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2년마다 전시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색깔, 예쁨, 아름다움’이란 주제를 내건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빨강 파랑 녹색 검정 등 원색의 둥근 원과 크고 작은 사각형을 캔버스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강렬하면서도 조화로운 색감을 전해준다. 여기에 간헐적으로 새겨넣은 수직의 굵고 짧은 선들은 위 아래를 소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듯 생동감을 더한다.

“지난 1960~70년대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 세계미술계에 미니멀리즘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구현한다고 그림에서 선만 몇 가닥 그려놓고 나머지는 생략해 버린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보는 이들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 의문입니다.”

그는 “‘예술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리주의나 사회주의 예술이론에 찬성한다”며, “인상파나 르네상스 후기 작품들과 같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대 미대 공예과를 졸업한 조씨는 한 때 요셉의원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사람들을 위한 미술 치료를 진행했었고, 최근엔 매주 화요일 3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정신 장애자들을 위한 웃음치료 교실을 열었다.

화가와 웃음치료, 어찌보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정신장애인들에게 본래의 삶을 되찾아 주는 일은 아름다운 그림을 창조하는 또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생각이다.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 몇몇과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식사하고 얘기하며 웃고 떠들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거의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태까지 좋아졌습니다.”

소외된 이들은 결국 우리가 소외시키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나 약간의 시간을 내서 이들과 함께 모여 웃고 소통하는 봉사를 하면, 이들에겐 크나큰 선물이 되고 자신도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고 조씨는 강조했다.

## ♥ 환자스토리

### 가족 잃고 삶의 의지 꺾였던 김영미씨

#### “‘푸드 스타일리스트’ 꿈 이루겠어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성공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세상을 등지려고 한동안 자살을 생각했던 여성이 마음을 추스르며 꿈을 엮어가고 있다. 깨어진 가정에서 단 둘이 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



던 김영미 씨(가명·36). 김씨는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주위의 도움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김씨의 지난 30여년 간의 삶은 불우했다. 어머니는 어려서 집을 나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오빠와 함께 셋이 살다 오빠가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한 뒤 기초수급자인 아버지와 어려운 삶을 이어왔다.

“고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학교에 찾아온 일이 있는 다음 학교에 적응을 못해 자퇴를 했어요. 아버지는 가끔 구청 취로사업을 하고 저는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호텔 프론트 직원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오빠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오빠가 간 뒤 아들을 욕하며 술만 마셨다. 김씨는 이런 아버지에게 술 그만 마시라고 싫은 소리를 했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아파트 6층에서 몸을 던졌다.

아버지의 죽음은 김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졌다.

“아버지 사망 후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 40만원짜리 세를 얻어 나갔는데 너무 슬퍼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방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요.”

지방에 있던 오빠가 올라와서 울지 말고 정신 차려 일을 해야 산다고 야단을 쳤지만 몇날 며칠 먹지도 않은 탓인지 머리 속으로는 뭘 하고 싶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문 앞에서는 검은 공룡 같은 것들이 얼씬거렸다. ‘아빠에게 가자,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만 하다가 가끔은 ‘그래도 일을 해야지’ 하는 자각도 들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 오빠가 주고 간 핸드폰으로 무료 병원을 찾다가 요셉의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요셉의원에 와 상담을 거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김씨는 ‘빨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본원 사회복지팀장은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는 김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입원을 해야 한다고 달래는 한편 늘 굶고 있는 김씨에게 김밥이나 과일, 물 같은 생필품을 가져다 주고 가끔 고기도 사줬다.

올해 8월 초 송팀장의 주선으로 기초수급 신청을 하던 중에 서류가 어머니에게 전달되면서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어머니는 딸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우울증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며 딸과 함께 같이 입원하자고 권했다.

“병원에서 제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입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절로 웃음도 나왔어요.”

좀더 치료가 필요한 김씨는 퇴원하면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을 따고 요리를 배워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얘기했다.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아름다운 마음씨도 내보였다.

#### ♥ 후원의 손길

### 생일잔치 비용 목요나눔에 기증한 강선화씨

#### “아들 부부와 봉사의 기쁨 함께 나눕니다”

“사흘 후가 제 생일인데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과 한 끼라도 나누자는 생각에서 아들부부와 함께



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목요 식사나눔에는 멀리 전주에서 올라온 강선화(여·65·수산나)씨가 이날의 식비를 후원하고, 둘째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가져온 백설기 떡을 나누어 주었다.

본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노숙인이나 주변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 본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식사 나눔을 하고 있다. 참가 인원은 130~180명 선. 강씨의 식사 나눔 후원 이번이 두 번째다.

“요셉의원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4년 전 회갑 때도 식사나눔을 후원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아이들이 주는 생활비 일부를 모아서 약소하나마 보냈습니다.”

오늘은 아들 며느리에게 요셉의원의 현장을 보여주고 남을 돕는 체험교육을 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강씨는 요셉의원 말고도 10여 군데에 기부와 후원을 해오고 있다. 손주가 여섯인데 돌 잔치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잔치 비용을 쾌척했다.

강씨는 “오른 손이 한 일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부끄럽다”며, “칠순 때 또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 갑상선 암 앓는 강순례 할머니

#### “삶이 얼마 남지 않아 품은 뜻 이루렵니다”

용인에 거주하는 강순례(테레사) 할머니와 남편 이성렬(바오로)옹은 지난 2008년 요셉의원 설립자인 선우 원장이 선종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이 병원에 후원하자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암에 걸려 수술을 받는 딱한 처지가 됐다. 갑상선 암으로 음식 줄로 식사를 해야 하고 숨을 쉬기도 벅찼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노부부는 마음에 담았던 뜻을 이루자는 생각에서 후원금을 보내왔다.



## ♥ 후원 및 기증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10월~11월)

권덕해 김경훈 김남현 김미란 김미열 김민석 김상진 김성우 김연순 김영애 김윤한  
김진희 김창호 문영선 민경준 민혜원 박광기 박병주 박상은 박순애 박재성 박정완  
박종관 박주원 반다이크 서진영 손기석 손막동 신승규 이상희 유성훈 유충열  
윤광호 윤진원 이성열 이옥순 이현돈 이현철 장재성 전기복 전영옥 정은주  
조광덴탈 조문자 조현순 진정애 최옥순 한성렬 한응섭 허수민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아산사회복지재단 영등포동주민센터 파라클립 CJ헬스케어

###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 KBS김치나눔 : 김치 10상자 ♥ 강선화 수산나 : 떡 4상자 ♥ 구영희 : 쌀 40Kg ♥ 김금  
선 : 감 3상자 ♥ 목5동성당 신아네스 : 쌀 10Kg ♥ 신세계백화점 : 김치 40상자 ♥ 아산사  
회복지재단 : 굴 20상자 ♥ 양길선 : 굴 3상자 ♥ 익명 : 빵 2상자, 생수 36병, 주스 2상자  
♥ 정경숙 : 쌀 20Kg ♥ 착한 과일 : 사과 3박스, 굴 2상자 ♥ 채경숙 소피아 : 굴 1상자  
♥ 최석재 : 감 1상자 ♥ 코스트코 : 빵 8카트 ♥ 파리바게트 : 빵 43상자, 케이크 31상자  
♥ 푸드뱅크 : 음료수 8상자, 빵 31상자, 멜론 10상자 ♥ 한동수 : 쌀 80Kg  
♥ 한울타리공동체 : 풋고추 1상자, 무 1상자 ♥ 할렐루야 아줌마 : 감자 1상자  
♥ 함께 하는 집 : 빵 30상자, 바나나 10상자

###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 가톨릭대학원생 : 옷 5상자 ♥ 권오필 : 매트 1개, 옷 1상자 ♥ 김명신 아네스 : 옷 1상자  
♥ 김용봉 : 옷 1상자 ♥ 김춘호 요아킴 : 옷 2상자 ♥ 김태은 수산나 : 옷 1상자 ♥ 남옥매  
루시아 : 이불 1채 ♥ 대방동성당 : 신발 4상자 ♥ 박영미 : 옷 3상자 ♥ 박호동 요아킴 : 옷  
4상자 ♥ 서지영 : 옷 1상자 ♥ 신미영 글라라 : 옷 1상자 ♥ 윤마리아 : 옷 1벌 ♥ 윤인자 :  
옷 1상자 ♥ 이성원 : 옷 1상자 ♥ 이희원 세실리아 : 옷 2상자, 이불 2채 ♥ 익명 : 옷 5상자,  
신발 1상자 ♥ 한수연 : 점퍼 1장, 이불 1상자, 가방 1개 ♥ 홍혜영 : 옷 5상자 ♥ 화곡동성  
당 : 옷 2상자

### + 의료기·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 뉴서울 성모요양병원 : 아이코솔시럽 ♥ 다림양행 : 디아릴 외 2종 ♥ 아름다운 공동체 :  
디스테로 연고 외 1종 ♥ 온누리약국복지회 : 리버코날 외 7종 ♥ 제일한방(주) : 한방파프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15종

### + 집기 및 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 권오필 : 스타다리미 1대 ♥ 영등포우체국 : 치약 2박스 ♥ 영등포우체국장 : 달력 1상자  
♥ 오세민 : 카트 1대 ♥ 유한양행 : 달력 1상자 ♥ 윤인자 : 전기장판 3장 ♥ 푸드뱅크 : 벽  
지 4상자

##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 새로 나오신 분

- 의사 : 김동순(호흡기내과) 오정애(일반외과)
- 약사 : 박정완 홍경남
- 치위생사 : 강윤화
- 일반봉사 : 권예슬 김정현 도혜인 류익환 마영미  
박성빈 박시훈 박재인 배아영 서동희  
이교운 이재학 임 나 최수연 최호규  
황지혜



### + 우리 병원에서 지원한 기관

♥ 갈거리 ♥ 가톨릭의료협회 ♥ 공부방수녀 ♥ 광  
적성당 ♥ 도티병원 ♥ 라지아 ♥ 사랑의 까리따스  
♥ 사랑의집 ♥ 새빛공 체 ♥ 서울시여성보호센터  
♥ 성가복지병원 ♥ 성글라라수도원 ♥ 우리물터  
♥ 원죄없으신마리아수녀회 ♥ 이보현 ♥ 인천교구  
(이주사목) ♥ 임마누엘집 ♥ 전교 가르멜 수녀회(페  
루) ♥ 정상모 ♥ 정유섭 ♥ 제기동 프란치스코의  
집 ♥ 쪽방 ♥ 차명옥 ♥ 최명덕 ♥ 프리플레르  
♥ 필리핀요셉의원 ♥ 한영덕 ♥ 한울타리공동체  
♥ 함께 하는 집 ♥ 허정석

###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요셉병원 월별 환자 진료 수

2016년 10월	1,989명
2016년 11월	1,916명



개원 이후 총 진료 인원

622,572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마태 25:40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 의존증 환자,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년 가까이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요셉의원 후원회원 가입방법

**1. 은행 자동이체 후원** 신분증과 도장·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가  
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로 입  
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구)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KEB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2. 지로납부 후원** 후원 담당자에게 전화(070-4688-3416)로 성명·주소·전화  
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용지를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지  
로용지[지로번호 7522950 예금주:(북)서울가톨릭사회복지부]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 직접 방문 후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요셉의원 4층 병원 사무실(총무팀)로 직  
접 방문하셔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필리핀요셉의원을 도와주실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005-201-940450	(북)서울가톨릭요셉의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요셉의원 구내

### ♥ 각종 모임 및 서비스 안내

#### +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 +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 +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 + 단주모임(A.A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 + 음악치료 및 인문학강의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 + 법률상담



시간 1, 3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 +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 + 웃음치료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8시  
장소 4층 쉼터

#### +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 휴게실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